

#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 연구

- 정보 전달과 설득적 말하기를 중심으로\* -

민 병 곤·박 재 현\*\*

< 次 例 >

I. 서론
II. 이론적 전제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논의 및 제언

## I. 서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 화자의 말하기 능력을, 2013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에 따른 성인 화자의 말하기 능력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김종철 외, 2013, 2014),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능력은 20대나 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The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이 논문은 2014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의 연구 성과물임.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1저자),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PIAAC)(임언 외, 2013)에서 한국인의 언어 능력이 16~24세는 OECD 국가 중 4위로 최상위 수준인데 비해 전체적으로는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PIAAC이 주로 문해력 중심의 검사임을 고려하여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조사 결과를 읽기 영역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는 20~59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서 국어 능력 등급의 수준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획득한 수준”(김종철, 2014: 58)에 따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듬해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 상정한 국어능력의 하위 영역 가운데 말하기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나,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문해력 중심이어서 구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를 분석한 민병곤·정재미·박재현(2014)의 후속 연구로서, 성인과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국어 교육 및 국어 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말하기 능력은 쓰

기 능력과 함께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입시 위주의 교육에 따른 화법 교육의 부실화, 성인의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민병곤·정재미·박재현, 2014).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 30대, 40대에 비해 50대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대에 따른 수준 저하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말하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보면 완만한 저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저조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고등학생 때부터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향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말하기 수준과 양상이 어떠한가?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 정한 등급별 비율이 어떠하며 각 등급의 전형적인 사례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등급별, 문항별,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가 국어 교육 및 국어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특히 국민의 말하기 능력 증진을 위한 화법 교육의 계획, 실행,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 II. 이론적 전제

이 연구는 성인과 고등학생이라는 독립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평가 도구가 동일하지만 평가 시기와 평가 환경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 평가 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추론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가 도구에 대한 검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이다. 여기에서는 Bachman과 Palmer(1996, 최인철·김영규·정향기 역, 2004)의 ‘시험 유용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구인 타당도’<sup>1)</sup>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인 타당도

타당도(validity)란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성태제, 2002: 315).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용 타당도, 예측 타당도, 공인 타당도 등 여러 종류의 타당도가 사용되는데, 그중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평가의 공신력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로서 타당도 검증에서 가장 중요하다(Luoma, 2001, 김지홍 역, 2013). 구인(構因)이란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를 가정하는 심리

---

1) 이 외에도 시험 점수와 관련된 속성으로 ‘진정성(내용 타당도)’, ‘상호작용성’, ‘영향’, ‘실용성’이 있다.

적 요인을 의미하는데(성태제, 2002: 322), 구인 타당도란 조작적으로 정의한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결국은 평가 점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achman과 Palmer, 1996).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평가의 능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평가 과제와 채점 도구를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험자가 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평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Bachman과 Palmer(1996)에서는 전자를 ‘구인 정의의 명확성, 적절성, 구인 정의에 관한 과제 특성의 적절성’으로 후자를 ‘과제 특성 내의 편파성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성인과 고등학생 대상 모두 ‘요청, 설명, 설득’이라는 세 과제에 대해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이라는 네 개의 구인을 적용한 평가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상관분석이나 요인분석과 같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국어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내용’ 차원과 ‘표현과 전달’ 차원의 구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2)3)</sup>.

---

2) 말하기 평가의 구인 설정은 평가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기 평가의 구인 설정에 대해서는 독립된 성질을 특정하여 제시한 논의와, ‘내용’과 ‘표현’ 등 개인의 인지적·행위적 구분을 적용한 논의 등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장경희 외(2006)에서는 국어 말하기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면서 ‘유창성, 문법성, 다양성, 논리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을 평가 구인으로 제시하였다. 후자는 국어교육 말하기 영역의 여러 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 및 전달’(류성기, 1996: 105-106), ‘내용 구성 능력, 표현 능력’(김평원, 2010: 50), ‘내용, 표현, 전달’(손세모들, 2007: 100) 등이 있다.

3)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는 인터뷰 방식으로 시험 상황을 설정하여 말하기의 실제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말하기의 상호작용적 측면이나 대인관계적 측면들을 구인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말하기 능력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평가 결과 해석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은 후자에 해당하는 ‘과제 특성 내의 편파성 원인’이다. Bachman과 Palmer(1996: 162)에서 이에 대해 “모든 수험자가 최고의 능력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일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언어 사용을 위한 수험자의 능력에 관하여 타당한 추론을 내릴 가능성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전제하였다. ‘과제 특성 내의 편파성 원인’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 중 ‘시험 내용과 응답 사이의 관계에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수험자들이 다르게 수행하겠는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수험자들이 동일한 명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시험 내용 밖의 명제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험자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1) 구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민원 제기하기, (2) 초등학생에게 엘리베이터 응급 상황 또는 유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설명, (3) 근로자 정년 연장법에 대한 견해 표명’이다. 1번 상황의 경우 고등학생이 직접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 것이다. 3번 상황의 경우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법과 관련된 주제는 개인적 관련성은 물론 배경 지식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 특성 내의 편파성 원인’에 따른 구인 타당도 문제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만약 평가 결과 고등학생의 점수가 성인보다 낮다면 배경 지식 등의 문제와 연관 지어, ‘고등학생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해당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점수가 낮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에 배경 지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

---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의 점수가 성인보다 높다면 실제 평가 결과의 점수 격차보다 능력의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신뢰도

신뢰도(reliability)란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실시하였을 때 측정의 일치성’을 의미한다(성태제, 2002: 341). 평가의 신뢰도는 ‘시험 신뢰도(test reliability)’와 ‘채점 신뢰도(scoring reliability)’로 구분된다. 시험 신뢰도는 평가 도구 자체가 가지는 신뢰도로서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일관성을 의미한다. 채점 신뢰도란 채점자가 채점한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채점 신뢰도는 ‘채점자 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와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로 구분된다.

말하기 평가의 경우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하므로 완벽한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2013년 성인 말하기 평가 채점에 참여하였던 평가자 대부분을 고등학생 말하기 평가 채점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채점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채점자가 동일 집단임을 고려한다면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인과 고등학생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한 이번 연구에서 평가 결과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채점 신뢰도보다는 시험 신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시험 신뢰도 중 평가 도구 자체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Bachman과 Palmer(1996)에서는 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험 상황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소란스러운 날과 조용한 날의 듣기 평가 점수가 다르다는 예를 들었다. 둘째, 시험 구조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시간의 배분이 나 채점 방법이 다를 경우, 지시가 상세하거나 간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시험 내용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 음성을 들려준 경우와 녹음한 것을 들려 준 경우가 다르다는 예를 들었다. 넷째, 예상되는 응답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응답의 형식이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 다섯째, 시험 내용과 응답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대화 참여 능력을 평가하면서 구술 면접만 한 경우와 중간에 역할극을 하도록 한 경우가 다르다는 예를 들었다. 이 다섯 항목에는 평가 도구의 구조와 내용 특성에 대한 것과 평가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이번 연구와 직결되는 것은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목인 ‘평가 상황’이다. 고등학생 대상의 말하기 평가는 학교에서 교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에 시행된 성인 대상의 말하기 평가는 면접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 상황의 분위기나 수험자의 몰입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평가의 신뢰도 차원에서 ‘시험 상황의 차이’에 따른 시험 신뢰도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 남녀공학 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 후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index.jsp>)에서 대상 학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학력 수준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비율이 각각 88.7%, 96.1%였고, SS고는 72.5%였다. 이는 표본 집단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약 82.5%에 이름을 보여 주는 것으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어 과목에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83.75%였음을 감안하면(이인호 외, 2014), 표본 집단의 학력이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등학생 연구 대상 현황

	여학생	남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보통 수준 이상 <sup>4)</sup>
MY고(여고)	1개반(38명)		88.7%
SM고(남고)		1개반(30명)	96.1%
SS고(남녀공학)	1개반(38명)	1개반(31명)	72.5%
계	76명	61명	137명

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어 과목에서 해당 학교 2학년 학생이 보통학력

## 2. 평가 도구

평가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종철 외(2013)에서 개발한 ‘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말하기 영역 세 문항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1, 2번 문항의 ‘물음, 상황, 조건’은 다음과 같다.<sup>5)6)</sup>

1.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청(또는 군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십시오.

[상황] ○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

○ 불법 주차가 많아 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

[조건]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2.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골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 ○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대처 방법

○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 대처 방법

[조건]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수준 이상으로 판정받은 비율.

출처: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5) 김종철 외 (2013)에서 고전 검사 이론을 적용하여 측정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다.

문항	사례 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1	1,416	0.762	쉬운 문항	0.758	변별력이 높은 문항
2	1,416	0.434	적절한 문항	0.794	변별력이 높은 문항
3	1,416	0.439	적절한 문항	0.742	변별력이 높은 문항

6) 3번 문항의 경우 다음 주기 평가를 위한 가교 문항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 3. 연구 절차

#### 1) 자료 수집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37명의 학생은 자신의 소속 학교 교실에 마련된 평가 장소에서 세 개의 평가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학교 국어 교사 1명이 협력 교사로서 평가 환경을 마련하고 피평가자의 참여를 지원하였다. 학교마다 대학원생 세 명이 진행 요원을 맡아 평가를 시행하였다. 말하기 평가는 2014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 2) 채점

말하기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은 크게 ‘내용 구성’과 ‘표현 및 전달’로 나누고, ‘내용 구성’은 다시 ‘내용 선정’과 ‘조직’으로, ‘표현 및 전달’은 ‘표현’과 ‘전달’로 나누었다. 문항별로는 내용 선정과 조직의 채점 요소 일부만 다르게 하고 항목별 배점이나 점수 비중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채점표는 문항별로 따로 제시하였으나, 문항별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점수 비중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말하기 평가 채점 기준표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선정	<공통>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1번>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2번>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번>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1	2	3	4	5	0.3
	<1번>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2번>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번>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1	2	3	4	5	0.3
표현 및 전달	<공통>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0.2
전달	• <공통>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1	2	3	4	5	0.2

평가 결과인 녹음 파일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채점자 9명에게 제공되었다. 채점자는 모두 석사 과정 이상의 국어 화법 교육 전공자로 구성하였으며<sup>7)</sup>, 2013년도 성인 대상 말하기 평가에 참여한 6

7) 석사 과정 재학 또는 졸업자 4명, 박사 과정 재학 또는 졸업자 5명이고, 이 중에서 5명은 교사 경력자 또는 현직 교사이다.

명을 그대로 참여하도록 하고 각 조당 2문항씩을 고르게 배정하여 성인 대상 채점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별 문항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채점자 9명을 3명씩 3개조로 구분하여 각 조는 1개의 문항에 대해 137명 전원을 채점하도록 하였다.

<표 3> 채점자 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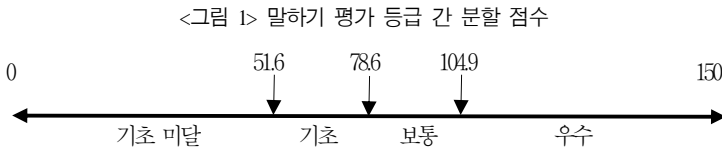
문항	세부 항목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상관계수		
		평균 점수			표준편차			채점자 1-2	채점자 2-3	채점자 1-3
1	1	9.55	10.93	10.01	3.34	4.08	3.84	.680	.733	.726
	2	9.74	9.50	9.90	2.77	3.68	3.59	.729	.716	.739
	3	6.37	6.74	7.07	1.82	2.26	2.50	.613	.671	.684
	4	6.34	6.16	5.75	1.05	2.59	2.29	.436	.863	.538
2	1	9.16	8.96	9.96	4.52	3.65	4.59	.815	.802	.786
	2	9.09	8.02	9.18	4.11	3.42	4.06	.771	.734	.739
	3	8.43	5.88	6.95	1.95	2.00	2.11	.421	.564	.270
	4	6.15	5.51	6.33	2.50	1.96	2.16	.685	.672	.787
3	1	8.82	8.85	9.77	3.06	3.05	2.80	.890	.728	.720
	2	8.80	9.44	8.32	2.92	2.95	2.44	.850	.760	.753
	3	5.85	5.90	6.54	1.93	1.91	1.72	.838	.757	.738
	4	6.23	6.63	6.80	2.09	2.25	2.12	.803	.857	.728

채점 후 채점자 간 신뢰도를 조정하기 위해 조 내에서 문항별 세부 평가 항목의 점수 편차가 5점 이상인 것은 재확인하여 협의 후 다시 채점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각 문항별 상관관계를 유의수준 .05에서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채점자 3명의 문항별 상관 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번 문항의 3번 '표현' 항목에서 채점자1과 채점자2, 채점자1과 채점자3의 상관계수가 0.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 외 모든 문항의 상관계수는 0.5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여 채점자 간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등급화

말하기 능력을 일관된 척도로 성인과 비교하기 위해 성인 대상 2013년 말하기 평가의 등급별 기준 점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150점 만점에서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우수’ 4개 등급의 급간 분할 점수는 <그림 1>과 같다.



## IV. 연구 결과

### 1.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

#### 1) 점수 분석

이 연구에서 조사한 고등학생 137명의 말하기 전체 평균 점수는 150점 만점에 94.08점으로, 2013년 성인의 평균 점수 69.79점에 비해 24.29점이나 높았다(<표 4>).

&lt;표 4&gt;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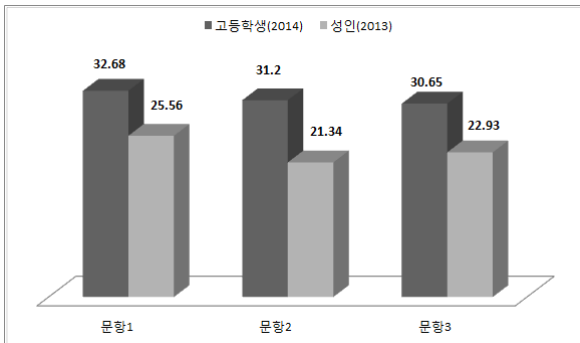
	인원(명)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고등학생(2014)	137	94.08	23.0	142.0	23.84
성인(2013)	1,416	69.79	30.0	134.3	19.01

문항별 분석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특히 설명하는 말하기인 문항2는 고등학생이 31.20점, 성인이 21.34점으로, 고등학생의 점수가 성인보다 9.86점 더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표 5>, <그림 2>).

&lt;표 5&gt;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문항별 점수 차이

구분	고등학생(2014)		성인(201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항1	32.68	9.28	25.56	6.97
문항2	31.20	9.89	21.34	9.96
문항3	30.65	8.66	22.93	7.87
합계	94.53		69.83	

&lt;그림 2&gt; 고등학생과 성인의 점수 차이



2) 성별 분석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성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t검정 결과 모두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았는데 고등학생은 12.43점, 성인은 2.99점의 점수 차이가 났다. 일반 성인보다 고등학생들의 남녀 성별 점수 차이가 더욱 컸다(<표 6>).

<표 6>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별 점수 차이, 단위: 평균(표준편차)

	남성	여성	t
고등학생(2014)	87.18(21.89)	99.61(24.02)	-3.130*
성인(2013)	68.31(19.52)	71.30(18.52)	-2.955*

p<.01

3) 등급 분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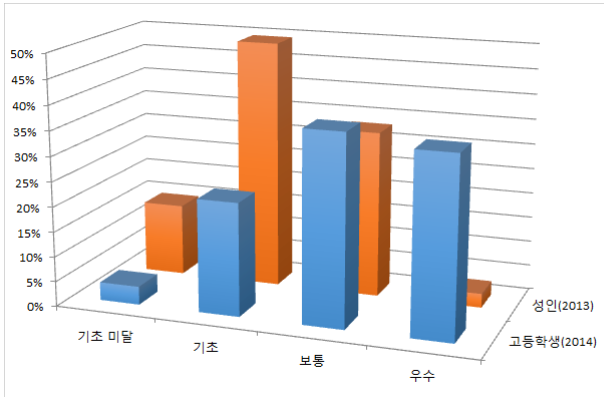
고등학생과 성인의 수준별 등급 현황에 대한 비교 결과 고등학생은 ‘보통’이 3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성인은 ‘기초’가 49.5%로 가장 비중이 컸다. ‘보통’과 ‘우수’를 합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73.8%이었으나 성인은 36.0%에 불과하였다. 특히 우수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35.8%로 전체의 1/3이 넘었으나 성인은 2.8%에 불과하여 1/3에도 못 미쳤다(<표 7>, <그림 3>).



<표 7> 고등학생과 성인의 수준별 등급 현황, 단위: 인원(%)

수준	분할 점수	고등학생(2014)	성인(2013)
우수	104.9 78.6 51.6	49(35.8)	40(2.8)
보통		52(38.0)	470(33.2)
기초		31(22.6)	701(49.5)
기초미달		5(3.6)	205(14.5)
합계		137(100)	1,416(100)

<그림 3> 고등학생과 성인의 수준별 등급 현황



## 2. 고등학생의 문항별 결과 분석

### 1) 1번 요청 문항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이나 불법 주차가 많아 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

제 해결을 요청하는 1번 문항의 경우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32.68점이었다(<표 8>).

<표 8> 1번 요청 문항 평가 결과

	내용 선정 15점	내용 조직 15점	표현 10점	전달 10점	합계 50점
평균	10.16	9.72	6.73	6.08	32.68
표준편차	3.38	3.03	1.93	1.77	9.28

1번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성별 비교 결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4.00점이 높았다. 세부 영역별로는 ‘표현’ 영역을 제외하고 세 영역 모두에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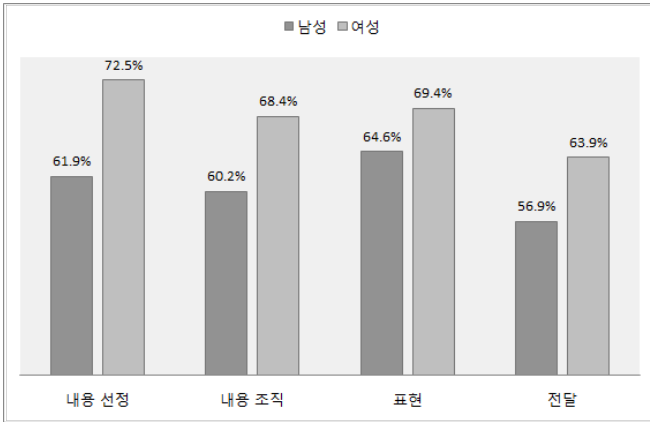
<표 9> 1번 요청 문항 성별 비교

	성별	명	평균	표준편차	t
내용 선정 15점	남성	61	9.28	3.07	-2.81**
	여성	76	10.87	3.47	
내용 조직 15점	남성	61	9.03	2.89	-2.40*
	여성	76	10.26	3.04	
표현 10점	남성	61	6.46	1.72	-1.45
	여성	76	6.94	2.07	
전달 10점	남성	61	5.69	1.72	-2.34*
	여성	76	6.39	1.77	
합계 50점	남성	61	30.46	8.41	-2.56*
	여성	76	34.46	9.62	

\*p<.05, \*\*p<.01

획득한 점수를 만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부 영역별 성취도는 <그림 4>와 같다. ‘내용 선정’ 영역의 성취도가 가장 높으며, ‘전달’ 영역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남학생의 ‘전달’ 영역 성취도는 56.9%로 가장 낮았다.

<그림 4> 1번 요청 문항 세부 영역별 성취도



## 2) 2번 설명(정보 전달) 문항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의 대처 방법이나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을 설명하라는 2번 문항의 경우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31.20점이었다. 1번 요청 문항에 비해 1.48점이 낮았다(<표 10>).

<표 10> 2번 설명 문항 평가 결과

	내용 선정 15점	내용 조직 15점	표현 10점	전달 10점	합계 50점
평균	9.36	8.76	7.09	6.00	31.20
표준편차	3.96	3.52	1.58	1.99	9.89

2번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성별 비교 결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3.13점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으나 ‘전달’ 영역에서만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1>).

<표 11> 2번 설명 문항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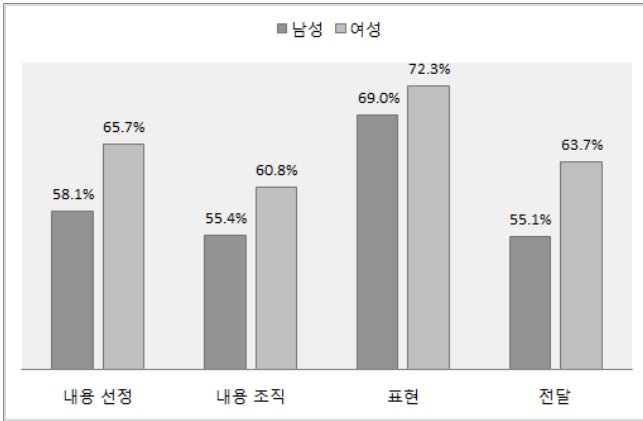
	성별	명	평균	표준편차	t
내용 선정 15점	남성	59	8.71	3.58	-1.71
	여성	76	9.86	4.19	
내용 조직 15점	남성	59	8.31	3.27	-1.33
	여성	76	9.12	3.69	
표현 10점	남성	59	6.90	1.61	-1.18
	여성	76	7.23	1.56	
전달 10점	남성	59	5.51	1.98	-2.52*
	여성	76	6.37	1.93	
합계 50점	남성	59	29.44	8.99	-1.88
	여성	76	32.57	10.38	

\*p<.05, \*\*p<.01

성취도 분석 결과 2번 설명 문항은 ‘표현’ 영역의 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성취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표현’ 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 모두 성취도가

60% 미만이었다(<그림 5>).

<그림 5> 2번 설명 문항 세부 영역별 성취도



### 3) 3번 설득 문항

토론 모임의 청중 발언 상황에서 정년연장법을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는 3번 문항의 경우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30.65점이었다. 1번, 2번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데 간단한 요청이나 설명하는 말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정해 설득하는 말하기의 난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 12>).

<표 12> 3번 설득 문항 평가 결과

	내용 선정 15점	내용 조직 15점	표현 10점	전달 10점	합계 50점
평균	9.15	8.85	6.10	6.55	30.65
표준편차	2.75	2.57	1.72	2.00	8.66

3번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성별 비교 결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4.33점이 높았다. 또한 모든 세부 영역에서도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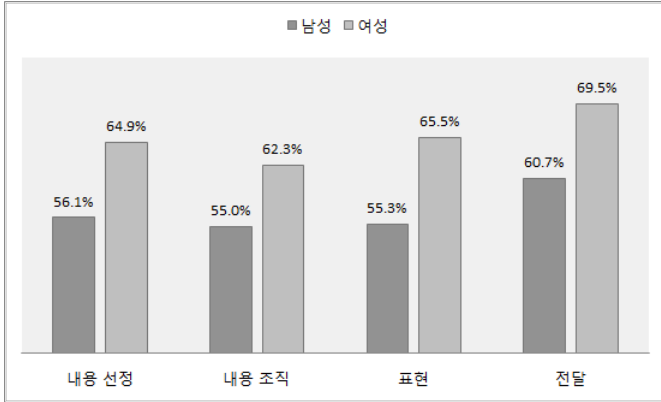
<표 13> 3번 설득 문항 성별 비교

	성별	명	평균	표준편차	t
내용 선정 15점	남성	61	8.41	2.45	-2.89**
	여성	76	9.74	2.84	
내용 조직 15점	남성	61	8.25	2.38	-2.53*
	여성	76	9.34	2.63	
표현 10점	남성	61	5.53	1.56	-3.62**
	여성	76	6.55	1.71	
전달 10점	남성	61	6.07	1.93	-2.62**
	여성	76	6.95	1.98	
합계 50점	남성	61	28.25	7.92	-2.99**
	여성	76	32.58	8.79	

\* $p<.05$ , \*\* $p<.01$

성취도 분석 결과 3번 설득 문항은 남녀 모두 70%를 넘는 세부 영역이 없었다. ‘전달’ 영역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성취도가 높지 않았다. 설득적 말하기의 경우 특히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 차원의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성취도는 ‘전달’ 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에서 6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6>).

<그림 6> 3번 설득 문항 세부 영역별 성취도



#### 4) 수준별 응답 예시

말하기 평가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 사례를 각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 (1) ‘우수’ 수준 답안 분석

다음은 2번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 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 (총점 124점) ‘우수’ 수준으로 판정받은 여학생의 답변을 전사한 것이다.

[1번]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요, 그게 제가 공원에 다니다보니깐 이

8) 여기에 제시한 사례는 세 문항에서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한 등급을 고려하되, 각 문항별, 채점요소별로 점수를 고르게 획득한 응답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제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지금 좀 굉장히 지저분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쓰레기가 방치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 그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웃음) 음, 어…, 그니까 보는,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 이게 막 공원 같은 사, 뭐지 공원에 동물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사는 동물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거기 뭐라고 해야 돼, 그니까 그 공원에 그 걸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해두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환경 미화 같은 걸로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서 그 자원봉사는 그 청소년들한테 봉사 시간을 주는 방법 같은 걸로 쓰레기를 치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얼굴 빨개졌죠. (웃음)

[2번] 어, 저 있잖아, 그니까, 만약 너에게 낯선 사람이 인제 착한 척을 하면서, 친한 척을 하면서 너에게 뭐를 도와달라라거나 어디까지 데려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너는 절대 가면 안 돼. 왜냐면 일단은 요즘 세상이 흥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 비록 너한테 친절을 베풀고 너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에게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있는 의도를 모르니까 어… 나 말고도 거의 모든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를 할 거야. 니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네.

[3번] 제가, 저는 정년을 연장하는 주장에 찬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요즘 아무래도 그… 사회 기술이? 그 과학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깐, 사람들이 그만큼 수명도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은퇴를 한 오십대지만… 오십대지만 (웃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 예전에 사람들이 수명이 그만큼 단축돼



있을 때 은퇴 기간을 정해둔 건데 요즘은 이제 사람 수명이 심지어 백세를 넘는 사람들도 계시니깐 그만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청소년의 일자리 걱정된다는 반대 의견 측의 주장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 살기 좋아진 만큼↗, 그만큼↗ 다양한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만큼↗ 청소년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그니깐 일자리가 더 다양하니까↗, 그만큼 청소년들도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번호 C-05-02>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학생의 답안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고 말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번 문항에서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미관상·위생상의 이유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관리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표현하고 있다. 2번 문항의 경우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것 외에 대처 방법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과 이유, 대처 방법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3번에서는 ‘수명이 단축돼 있을 때 은퇴 기간을 정해 두었었다’는 부분과 같이 사실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논제에 대한 입장의 표명과 이유의 제시, 반대측 의견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하여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휘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성, 반언어적 표현, 시간 준수 등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2) ‘보통’ 수준 답안 분석

다음은 ‘전달’ 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내용, 조직, 표현’ 면은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아(총점 93점) ‘보통’ 수준으로 판정받은 남학생의 답변을 전사한 것이다.

[1번] 공원, 공원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전화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쓰레기, 가 너무 많아서 지나다니는 데 불편한데. 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전화드렸어요.

[2번] 어... 너가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갑자기 멈추잖아, 그러면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너 바로 꺼내줄 거니까... 너 혼자 있으니까, 너 혼자 잘 놀 수 있으니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가지고 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안에서 하고 있으면 돼.

[3번]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제일 가까운 아빠도 정년퇴직 앞에 두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시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년 연장해서 차라리 좀 더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서 더 경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더... 회사 같은 데서 효율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번호 C-02-07>

이 학생은 우수 수준 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낮고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문항에서는 문제 상황

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을 하고는 있으나 ‘물음’과 ‘상황’으로 제시한 내용을 반복하는 선에서 머무를 뿐 자신의 요청을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였다. 2번 문항의 경우 대처 방법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아이가 갖게 될 공포감에 대한 대처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번은 입장 표명도 있고 이유도 제시하였으나 개인적 경험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과 청년층 일자리를 걱정하는 반대측 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을 하였다. 어휘, 어법, 어조, 비언어적 표현 등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기초’ 수준 답안 분석

다음은 ‘표현’ 면에서는 보통 정도의 점수를 받았으나 ‘내용, 조직, 전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아(총점 70점) ‘기초’ 수준으로 판정받은 남학생의 답변을 전사한 것이다.

[1번] 음... 공원에 쓰레기가 많아서... 냄새가 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면 돼요? 계속? (네, 말씀하시면 돼요) 음... 사람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말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팻말 같은 거 설치해 주세요.

[2번] 음, 어.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의 대처방법... 친구야, 음...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은 무작정 따

라가지 말고... 따라가면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마.

[3번] 음...저는 정년 연장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음...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죠. 그리고 요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년 늘려버리면은, 청년들 직업 얻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자료 번호 C-22-11>

이 학생의 답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내용의 충실도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의 내용이 단순하다는 점이다. 1번 문항은 보통 수준 학생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요청하는 내용 간의 연결 관계가 미흡하여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2번 문항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 따라 가지 말라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3번은 입장 표명과 근거 제시가 있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쳐 논리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을 하고 있다. 보통 수준 학생의 답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내용의 충실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의 생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전반적인 어조나 속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4) ‘기초 미달’ 수준 답안 분석

기초 미달 수준으로 판정된 학생은 표집된 학생 중 5명으로 3.6%이었는데, 다음 예시 자료는 3번 문항에서 답변을 못하여 최저점을

받았고 1, 2번 문항에서도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점수를 받아(총점 42점) ‘기초 미달’ 수준으로 판정받은 여학생의 답변을 전사한 것이다.

[1번] 잠깐만요 공원에 쓰레기가 있어서 불편한 상황요↗(네) …공원에 쓰레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거고… 어, 불편해 해요… (5초 침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10초 침묵) 불쾌하게 생각해요.

[2번] 낮은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일단 안 된다고 하고…(10초 침묵)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15초 침묵) 도망가요.

[3번] (시작한 뒤, 약 40초간 침묵) 모르겠어요.

<자료 번호 C-05-27>

이 학생의 답변에 나타나는 특징은 각 문항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가 한 가지에 그치거나 전혀 답변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1번 문항에서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외에 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담화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번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직접 말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말할 내용을 설명하거나 자신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처럼 말을 하고 있어서 말하기 상황의 인식과 답변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은 오랜 침묵 후에 답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말하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앞뒤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어를 통하여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를 객관화하거나 담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사고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의적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말하기 능력 수준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IV.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수와 보통 수준의 비율이 성인은 각각 2.8%, 33.2%로 두 수준을 합하여도 36% 정도인데 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각각 35.8%, 38.0%로 두 수준을 합하면 73.8%에 달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 미달 수준도 성인은 14.5%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3.6%에 그치고 있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 성인의 말하기 능력이 20, 30, 40대보다 50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고등학생 이상 국민의 말하기 능력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장 높고 20~40대에서 추세적으로 낮아져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이후 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은 문해력 중심의 평가인 2013년 PIAAC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논의할 만한 지점들도 없지 않다.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은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12.43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의 성별 점수 차가 2.99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에서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말하기 능력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표집의 편향성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공학을 제외하고 보면, 남학교의 국어 학업성취도가 여학교에 비해 오히려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문·이과 구분 없이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문항별로 어떤 평가 요소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살펴보면, 1번 문항은 ‘내용 선정, 조직, 전달’ 부분에서, 2번 문항은 ‘전달’ 부분에서, 3번 문항은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의 전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모든 문항의 ‘전달’ 부분에서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은 여학생의 전달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의미이다. 말하기에서 주로 발음, 속도, 어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시간 활용 같은 ‘전달’<sup>9)</sup> 부분이 쓰기와 구별되는 말하기의 특징

9) 화법 연구에서 ‘전달(delivery)’의 일반적인 의미는 청중에게 말을 할 때 즉흥적으로 말하느냐, 준비하여 말하느냐, 원고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달’의 체점 요소로 제시된 발음, 속도, 어조 등의 반언어적 표현은 ‘표현(expression)’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평가 상황에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과 ‘전달’을 매개하는 방식이 반언어적 요소 중, 머뭇거림이나 어조 등을 통해 반영된다고 보고 전달 범주에 포함하였다.

적인 요소임을 감안하면 여학생의 구어 표현력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문항별로는 요청하는 말하기인 1번 문항의 평균 점수가 32.68점, 설명하는 말하기인 2번 문항이 31.20점, 설득하는 말하기인 3번 문항이 30.65점으로 ‘요청 > 설명 > 설득’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설득하는 말하기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고 반대 의견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평가 항목별 점수를 보면 1, 2번 문항에 비해 ‘내용 선정, 조직’ 부분의 점수는 더 낮고 ‘전달’ 부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3번 문항이 가상의 특정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1, 2번 문항과 달리, 토론 모임의 청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행의 용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말하기 평가에서 의사소통의 실제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1, 2번 문항과 관련하여 특정한 청자를 고려하며 말하는 능력, 즉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감수성 또는 메타적 성찰 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은 피험자들이 말하기 태도 부분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의 일과를 크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교사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은 교과 수업 시간에 각종 수행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경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하기 평가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



이다. 성인 화자의 경우 말하기 평가에 참여한 화자가 ‘듣기, 읽기, 문법’ 영역까지 응시하면서 약 1시간을 조사에 참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평가 결과의 해석에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제언

민병곤·정재미·박재현(2014)에서는 성인의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말하기 평가의 영역과 대상 세분화, 피험자의 최선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검사 방법의 개선, 국민의 말하기 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및 효과 검증’의 세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언은 고등학생 말하기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대상을 PIAAC에서와 같이 16세부터 65세까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서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20세 미만의 경우 PISA를 비롯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각종 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 중등학교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평가에 가용한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20세~59세까지를 평가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PIAAC과 같은 검사 결과와 비교하고 중등 교육과 성인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와는 별도로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말하기 평가를 시험 영역에 포함

하여 학생들의 말하기 수준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등학생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하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수준 이상 학생의 비율이 83.75%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말하기 평가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비율이 73.8%에 그친 것을 보면, 고등학생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말하기 영역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 위주의 교과 교육이 빚어낸 폐해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 사회의 화법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평가 도구 및 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achman과 Palmer(1996)에서 제안한 유용도 높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유용도 개념은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조건이고, 그 외의 요소들은 말하기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여타 요소의 경중을 판단하여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뢰도와 타당도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 더 의미 있게 적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 직접 평가의 경우 특히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특히 대규모 평가일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행상의 난점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용도 높은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화법 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등학교 말하기 교육의 경우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제도, 교사의 전문성, 사회적 편견 등의 제

약으로 교육적 실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화법 교육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교육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 및 고등학생 화자의 담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말하기 실태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예시 자료 수준에서라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고등학생 말하기 평가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후 말하기 평가와 교육을 위한 학습자 담화 자료의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종철·민병곤·박현정·정희창·김봉순·박재현·주재우(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김평원(2010), 『말하기 평가의 분석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성기(1996), 『국어 말하기 교육의 효율적인 평가 방안』, 『교육한글』 9, 한글학회, pp.71-122.
- 민병곤·정재미·박재현(2014), 『성인의 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화법연구』 24, 한국화법학회, pp.101-136.
- 성태제(2002),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 손세모(2007), 『설명 능력 평가 방법』, 『화법연구』 11, 한국화법학회,

\* 이 논문은 2015. 4. 30. 투고되었으며, 2015. 5.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13.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6. 1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pp.67-108.

- 이인호·김도남·김경주·이상일(201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창덕·임철성·심영택·원진숙(2000), 『삶과 화법: 행복한 삶을 위한 화법 탐구』, 박이정.
- 임언·서유정·권희경·류기락·최동선·최수정·김안국(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경희·이필영·김태경·김정선·김순자·권우진·천은진(2006), 『말하기 능력 측정 도구 개발 1』
- Bachman, L. F., & Palmer, A. S.(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최인철·김영규·정향기 역(2004), 『언어 테스트의 설계와 개발』, 범문사.
- Luoma, S.(2001), *Assessing Spe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지홍 역(2013), 『말하기 평가』, 글로벌콘텐츠.

## ■ 국문초록

#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 연구

- 정보 전달과 설득적 말하기를 중심으로 -

민병곤·박재현

이 연구는 고등학생 화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여 성인 화자의 말하기 능력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3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녀 학생 137명을 표집하였다. 평가 도구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말하기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를 사용하고 문항별로 3인의 복수 채점을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수준이 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수준 이상의 비율이 성인은 36%에 그친 데 비해 고등학생은 73.8%에 달하였다. 이로 미루어 16세 이상 국민의 말하기 수준이 고등학생 때 가장 높고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고 그 격차가 성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중등 교육과 성인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대상을 PIAAC과 같이 16~65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말하기 영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유용도 높은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화법 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말하기 능력, 말하기 평가, 고등학생 화자, 국어능력, 화법 교육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eaking skill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 Focusing on the informative and persuasive speaking –

Min, Byeonggon · Park, Jaehyun

The study aims to asses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peaking skills and compare them with adult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37 tenth grade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three academic high school in Seoul. The tools used were the same as those used in 2013 for the Evaluation of Language Competence for the General Public. Three raters were assigned to each item to confirm validity and reliabi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 school students' speaking skill levels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adults. Only 36% of adults were over the normal compared with 73.8% of the high school students. This indicates that with regard to speaking skills in Korea, individuals reach their peak levels during high school, after which these levels slowly decline with age. In terms of gender, female students' levels were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which corresponded to a general understanding of gender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suggest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expand the participants' age range for the Evaluation of Language Competence for the General Public from 16 to 65. Second, include a section for speaking skills in the National Assessment of Evaluation Achievement. Third, develop and execute useful speaking assessment tools to accumulate fundamental data to improve speaking skills.

[Key words] speaking skills, assessment of speaking skills, high school student as a speaker, Korean language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